

# 여수 돌산·화양 일대에 1조원 투자 '레저관광벨트' 조성

### 전남도, 모아그룹·여수첼린지파크관광 등 기업과 협약 호텔·마리나·골프장 갖춰...세계적 관광벨트 구축 탄력

여수 화양면과 돌산 일대에 호텔, 숙박시설, 컨벤션센터, 마리나, 대중골프장 등으로 구성되는 관광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섬섬백리길로 고흥과 연결되는 화양면이 여수의 새로운 관광지로 부상할 전망이다.

전남도는 24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모아그룹, ㈜여수레저개발, 여수첼린지파크관광(주), 두제이산업(주)과 여수 무술목 관광단지 조성, 첼린지파크

관광단지 호텔 건립을 위한 1조원 규모 관광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동부권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남해안권 세계적 해양레저관광벨트 구축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협약식엔 김영록 전남지사와 박치영 모아그룹 회장, 송용민 여수레저개발 대표, 윤중섭 여수첼린지파크관광 회장, 윤경화 두제이산업 대표, 정

기명 여수시장, 이재태-이광일-강문성 전남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모아그룹과 여수레저개발은 2030년까지 여수 돌산을 평사리 일원 141만5000㎡ 부지에 7010억원을 투자해 휴양형 해양레저복합단지를 조성한다.

200실 규모 5성급 호텔과 890실 숙박시설, 2000석 규모 컨벤션센터, 푸드테마파크, 해안유원지(마리나), 18홀 규모 대중골프장을 조성해 세계적 관광 명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모아그룹은 전국 아파트 3만6000여 세대 분양 실적이 있는 2022년 기준 시공능력 평가순위 전국

87위의 호남 중견기업이다.

여수첼린지파크관광과 두제이산업은 여수 첼린지파크 관광단지 내 화양면 나진리 일원에 2025년까지 3000억원을 투자해 지하 3층 지상 10층, 434실 규모 호텔을 건립한다.

호텔은 전남 최초로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공간을 확보해 운영하며 반얀트리 카시아 호텔과 제휴해 세계적 프리미엄 서비스를 하게 된다.

반얀트리 그룹은 47개의 호텔&리조트, 70여의 리테일 갤러리, 60개 스파 등 세계 최고의 글로벌 럭셔리 호텔&리조트 운영기업이다.

여수 첼린지파크 관광단지는 2019년 관광단지조

지정받았다. 지난 20일 개장한 루지 썰매장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사업비 7000억원을 투자해 호텔, 대관람차, 청소년 수련시설 등 국내 최대 체험형 관광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모아그룹과 여수첼린지파크 관광의 투자로 775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고 위축된 지역 관광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남의 섬·해안·갯벌 등은 세계인이 꼭 찾아오고 싶어하는 국제적 명품 관광자원으로, 이를 활용한 민간관광개발 투자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외국인 유학생 서포터즈 발대식. 문영훈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24일 오후 시청 세미나실에서 열린 광주 외국인 유학생 서포터즈 발대식에 참석하여 위촉장을 수여한 후,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제공>

### 광주비엔날레 등 홍보 역할 외국인 유학생 서포터즈 발대

광주시는 24일 시청 세미나실에서 외국인 유학생 서포터즈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서포터즈는 광주 소재 대학(원)에 다니는 중국, 베트남, 독일, 우즈베키스탄 등 24개국 국적 유학생, 교환학생 30명으로 구성됐다.

서포터즈들은 제14회 광주비엔날레와 국가별 파빌리온(특별관) 프로젝트, 다음 달 21일 광주 중외공원에서 열리는 외국인 유학생의 날 행사 등을 홍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유학생의 날은 시민의 날과 연계해 광주 유학박람회, 비엔날레 파빌리온 팝업 뮤지엄, 장기자랑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포터즈에게는 활동내역에 따라 자원봉사시간 부여, 활동증명서 발급 등이 지원되며, 우수 서포터즈를 선발해 포상한다. /박진표 기자 lucky@

### 광주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 주거 지원

김정현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은 24일 LH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 김재경 본부장과 '전세 사기 대책 긴급 간담회'를 갖고 전세피해주택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LH 광주전남본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주거 지원과 함께 전세 사기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LH 광주전남본부는 전세 피해자들이 주택 경매에 따른 퇴거 위기에 내몰리지 않도록 긴급 주거지원 공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음 달 광주시-LH-HUG(도시주택보증공사) 간 긴급 주거지원 업무협약을 체결, 광주지역 내 전세 피해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지원절차는 광주시가 LH와 사용계약 체결 후 피해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시세 30% 이하 임대료로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특히 LH 광주전남본부는 대학생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전남대, 조선대, 목포대 등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청년 전세 사기 예방 순회강연'을 시행하고 있다.

김재경 본부장은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 매입임대주택 공가 등을 활용해 우선 공급할 방침"이라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상담 등 법률 지원 서비스를 최대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현 시장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전세 사기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대책을 추진하겠다"면서 "당 차원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아이디어·기술 있으면 AI 시제품 제작

#### 광주시, 다음달 8일까지 참여업체 모집...AI 생태계 활성화 기대

광주시가 뛰어난 아이디어와 기술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자금 부족 등으로 인공지능(AI) 시제품을 제작하거나 제품·서비스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AI스타트업 지원에 나선다.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하 사업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광주시가 함께 추진하는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 중 하나로 인공지능 창업 활성화를 위해 '2023년도 AI(시)제품·서비스 제작 및 상용화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감도

이번 사업으로 AI제품·서비스 제작과 비즈니스 모델 발굴 지원을 통해 AI 스타트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돕고 광주 AI 비즈니스 생태계 활성화와 지역·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사업단의 설명이다.

AI(시)제품·서비스 지원사업은 광주지역에서 신규로 인공지능 시제품·서비스를 제작해 사업화를 희망하는 창업 7년 미만 전국 창업·스타트업 대상이다. 이 가운데 55개 내외의 기업 및 과제를 선정하고, 기업 당 5000만 원에서 1억5000만 원까지 시제품 제작비를 지원한다.

AI 제품·서비스 상용화 지원사업은 기존 인공지능 제품의 서비스 개선과 기능 향상을 희망하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이 중 10개 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당 1억 원에서 최대 2억5000만 원까지 상용화 사업 비용을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광주 AI창업캠프 입주 사무실 지원과 AI-창업교육, 품질 향상·규제 해소 컨설팅, AI 콘퍼런스 참가 등 사업단에서 추진 중인 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 추가 지원 혜택도 제공한다.

AI(시) 제품·서비스 및 상용화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오는 5월 8일까지 인공지능 산업융합사업단 홈페이지(<http://aica-gj.kr>)를

통해 지원할 수 있으며, 문의는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창업지원팀(062-610-3941)으로 하면 된다.

그동안 인공지능(AI) 시제품 제작 지원 및 상용화 지원을 받아온 기업들의 성장세도 눈에 띈다.

실제 AI 시제품 제작 지원을 받은 AI 기반 감성 맞춤형 음악 추천 서비스 기업인 인디제이는 지난해 미국에서 열린 세계 최대 IT 전시회인 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했으며, 이스라엘 자동차 기업과 인공지능 기반 협력체계를 구축해 협업사업을 추진 중이다.

AI 제품·서비스 상용화 지원을 받은 무한정보기술은 ICT 신기술을 이용한 공간 정보 처리분석 전주기 지원 소프트웨어 'AiMaps(에이아이맵스)'를 개발하고, 글로벌 드론 통합관제 및 이스라엘 드론 배송 전문 기업인 하이렌더와 지난 3월 기밀유지협약을 체결하는 등 성과를 냈다.

김준호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은 "올해 추진하는 AI 시제품·서비스 및 상용화 지원사업은 인공지능 창업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공지능 스타트업들이 다양한 인공지능 융합 제품과 서비스의 제작·사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과, AI 산업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